**주제: 디지털 접근성(Digital Accessibility)과 포용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개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 속에서,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등 정보 접근에 제약을 가진 사람들도 동등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접근성’은 기업의 필수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ADA)을 기반으로, 공공·민간 영역 모두에서 웹 접근성과 포용적 설계(Inclusive Design)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배경**

한국은 웹, 앱 설계에서의 포용성이나 접근성 기준이 아직 미비한 경우가 많아, 관련 국제 기준(WCAG 등)과 미국 기업들의 설계 철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Big Tech 기업들은 접근성 전담 조직을 두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ITM 전공의 “기술과 사람 중심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다

장애인, 고령자 정보 격차

웹 접근성, AI보조기술

조사기관: Microsoft Accessibility team, WebAIM.org, G3ict, Google AI for social good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 미국 기업 > 한국

**주제: IT 기반 기후 기술(Climate Tech)의 혁신과 기업 전략**

**개요**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 과제이며, 기술 기업들 또한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기후 기술(Climate Tech)’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탄소 배출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화, 자원 최적화 등에 활용되며 기술과 환경의 융합을 이끌고 있다.

**배경**

미국은 세계 기후 기술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로, Google, Microsoft 등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Watershed, Carbon Direct 등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지속가능한 기술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IT를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전략은 ITM 전공의 기술·경영 융합 역량과 직접 연결된다.

ESG요구, 탄소중립 압박 증가

IOT, 클라우드, 탄소추적

=> LG CNS의 데이터 기반 ESG 솔루션 연결 가능

=> 스마트빌딩/ 팩토리 자동화

조사기관: Watershed, Microsoft Sustainability, MIT climate initiative 등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 미국 스타트업(기업) vs 한국 IT 산업 시장 비교

**주제: 핀테크와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위한 미국의 마이크로 금융 전략**

**개요**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언더뱅크드(underbanked)’ 계층을 위한 핀테크 서비스는 미국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술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IT 기반 마이크로 금융은 은행 계좌 없이도 자금 이체, 급여 선지급, 소액 대출 등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 불평등을 줄이고 있다.

**배경**

미국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사회적 금융을 실현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기존의 대출 심사 기준을 재정의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기술 중심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한국 사회가 고령층, 청년층의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ITM 전공이 지향하는 기술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과 맞닿아 있다.

언더뱅크드 계층 증가

핀테크, 마이크로대출, 블록체인

AI 얼굴 인식, OCR/ DID(블록체인 기반 정보 보관,전달 기술) / 머신러닝 기반 신용모델/

오픈뱅킹 API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 빅데이터 + AI 융합된 기술(가장 전문적) + 한국 사회 도입 가능성

**주제: Open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기업의 AI 거버넌스 전략**

**“생성형 AI의 도입에 따른 책임 있는 사용 기준은 어떻게 정립되는가?”**

**개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급속한 확산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 생성(hallucination), 편향(bias),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OpenAI 기술을 포함한 생성형 AI 도입 시 **기술적 활용을 넘어선 윤리적 기준과 내부 통제 체계**, 즉 **AI 거버넌스(AI Governance)**를 수립하고 있다.

**배경**

OpenAI의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단기간 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확산을 보였으며, 특히 Microsoft, Google, Salesforce 등 글로벌 기업들은 업무 자동화와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법적 규제나 국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각자 윤리적 책임, 투명성, 공정성, 보안성 등의 원칙을 자율적으로 정립하며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AI hallucination(환각), 편향, 정보 출처 문제

기업이 내부 AI 사용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OpenAI가 제안하는 안전성 가이드라인 비교

한국과 미국의 AI 가이드라인 차이

**조사기관:** AI 윤리 연구소(Stanford HAI, Center for Humane Technology)**,** OpenAI 정책 부서 인턴/직원**,** 글로벌 기업의 Chief AI Officer